

『중·고등학교의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박 찬 웅(부산과학고등학교)

우리 400만 부산 시민은 한국 영재 학회가 주최하는 추계 학술 세미나가 “영재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항도 부산에서 개최됨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역사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심지어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까지도 경제 발전을 위한 쓸모로 그 가치를 논해 왔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까지 그 수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기아에서 해방되려는 국민적 욕망은 그 나름대로 60, 70, 80년대 중반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돈, 돈 하다 보니 인간성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에 직면하고 인간의 가치관까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고, 사회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많아도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풍요속의 빈곤’현상을 빚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고급 인력의 양성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계의 과학 기술 동향을 바라보면서, 고급 인력의 양성 없이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이번에 과학기술원 이군현 교수님께서 중·고등학교의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반가움과 고마움을 깊이 느낍니다.

교수님은 영재 교육의 필요성과 우리 한국의 영재 교육 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진국 영재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명의 영재가 국민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할 만큼 영재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재를 선발하고 수용하며 그들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점에 우리 영재 학회가 수년간 심혈을 다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교육 진흥청(가칭)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 교육 기본법이 금년 국회에서 통과 될 것이고, 곧바로 내년 국회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가칭)이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 한량 없습니다. 이상희 회장님과 여러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작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 자격으로 방미하셨을 때('95. 7. 24) 샌프란시스코 페어몬드 호텔에서 재미 과학자 200여 명과 교민들 앞에서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 기술 발전을 목표로, 과학 기술 인재 양성, 기초 과학 진흥, 첨단 기술 확보 등 3대 과제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정말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하신 약속이기에 더 더욱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튼튼한 뿌리 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맹세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어린 “새싹”들을 잘 키워 봅시다. 감사합니다.